

NIM 추가 하락폭은 크지 않을 것

2016. 08. 18

Analyst

이병건

02 369 3381

pyrrhon72@dongbuhappy.com

News

7월 신규기준 COFIX금리 12bp 하락 6월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하 영향으로 7월 신규기준 COFIX 금리는 6월보다 12bp 하락한 1.32%로 나타났다. 잔액기준으로는 전월 대비 4bp 하락한 1.69%로 집계되었다. 은행연합회는 "과거 취급한 고금리 예금의 만기가 도래하고 상대적으로 저금리인 예금이 신규 반영되면서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등)

Com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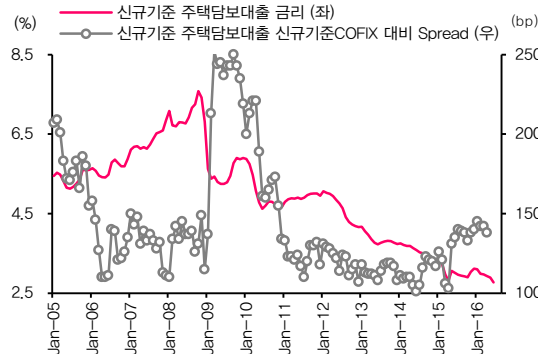
Point 1. 신규기준 예대마진은 확대 추이 지속 가계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과거에는 CD금리에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책정되었으나, 최근에는 신규기준 COFIX 금리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신규기준 COFIX가 지금과 같이 가파르게 하락할 경우 대출금리가 하락해 NIM이 악화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최근에는 2015년 이전과는 달리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정상화시키려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어, 과거와 같이 대출금리가 급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2014~2015년 100bp 수준까지 하락했던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는, 6월 130bp 이상으로 높아졌고 이에 따라 신규기준 및 잔액기준 예대마진도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Point 2. 조달금리 하락,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 기준금리 인하 시 NIM이 악화되는 것은 운용금리가 먼저 하락하고 조달금리가 뒤늦게 하락하는 시차현상의 영향이 주된 원인이다. 그런데 정기예금금리 하락이 계속되고 있어, 대출금리 하락효과와 상쇄현상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전히 전년동월 대비 정기예금금리가 25bp 정도 낮게 차환되고 있으며 정기예금의 차환이 향후 3~4개 분기 동안 계속될 것이므로 NIM 하락은 단기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Action

은행 수익성에 대한 긍정적 접근 유효 자본적정성 관리 차원의 대기업 여신에 대한 보수적 태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여신과 가계여신의 꾸준한 증가를 통해 자산성장이 지속되고 있으며,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NIM 하락 가능성은 크지 않아 은행의 수익성은 바닥을 확인한 상황이다. 따라서 최근 가장 중요한 지표인 보통주자본비율이 양호한 은행을 중심으로 은행주에 대해 긍정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은행권 하반기 실적은, 대손비용 감소를 기반으로 기대 이상이 될 가능성이 충분한 상황이다.

도표 1. 신규 기준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 정상화 (6월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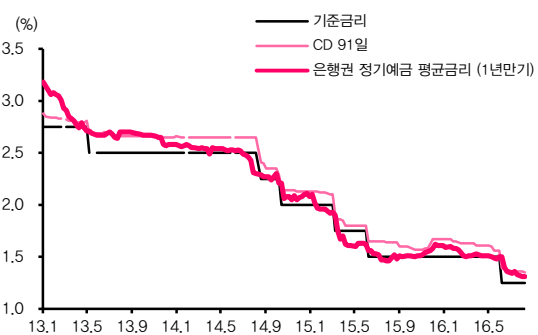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동부 리서치

도표 2. 예대마진 안정화 (6월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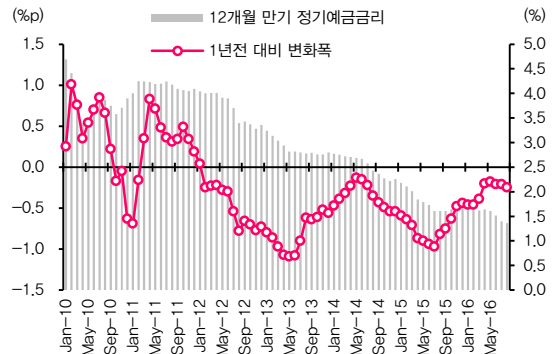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동부 리서치

도표 3. 정기예금금리 빠르게 하락 (8/12 까지)



자료: 한국은행, 인포맥스, 동부 리서치

도표 4. 정기예금금리 하락 추세 지속 (8월까지)



자료: 한국은행, 동부 리서치

Compliance Notice

- 자료 발간일 현재 본 자료를 작성한 조사분석담당자는 해당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 발간일 현재 지난 1년간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한 종목들의 IPO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 발간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자료 발간일 현재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법인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내용은 기관투자자 등에게 지난 6개월간 E-mail을 통해 사전 제공된 바 없습니다.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허락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1년간 투자이익률 비율 (2016-06-30 기준) - 매수(74.2%) 중립(25.8%) 매도(0.0%)

기업 투자이익률은 향후 12개월간 당사 KOSPI 목표 대비 초과 상승률 기준임

- Buy: 초과 상승률 10%p 이상
- Hold: 초과 상승률 -10~10%p
- Underperform: 초과 상승률 -10%p 미만

업종 투자이익률은 향후 12개월간 당사 KOSPI 목표 대비 초과 상승률 기준임

- Overweight: 초과 상승률 10%p 이상
- Neutral: 초과 상승률 -10~10%p
- Underweight: 초과 상승률 -10%p 미만